



언동르싸이 교회 소식



쫄림쭈어. 안녕하세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캄보디아의 날씨는 늘 덥지만 특히 요즘 건기에 접어들어 더욱 더워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한국의 기분 좋은 포근한 봄날이 그리워지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언동르싸이 해문 교회 어린이 예배에 약 80 여명의 어린이들이 매 주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나이가 어려서는 형, 누나, 언니들과 함께 예배에 잘 나오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예배에 잘 참석하는 청소년들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장년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예배 후에는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도의 시간을 너무 사모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며,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기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언동르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훈련을 마치고



제자훈련을 잘 마친 언동르싸이 교회 학생들과 함께 수영장에 다녀왔습니다.

간단한 카테키즘 책을 가지고 말씀을 외우며 훈련을 하였고,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친 학생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 7명이 시작했는데 끝까지 잘 마친 학생들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3개월정도의 시간 동안 매 주 쓰라린 전도사님과 함께 4명의 학생이라도 잘 따라와 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뻐’ 은 어렸을 때에 교회 예배에 드문 드문 나왔다가 나이들어 오히려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하고 제자훈련도 끝까지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8년 이상의 언동르싸이 교회 사역이 헛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선교사인 저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은 기도의 후원자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캄보디아에 살며 사역하게 하셨으며, 복음이 전해지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놀랍고 참으로 선하십니다.

기도제목

- ① 캄보디아성결교회의 목회자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성령충만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 ② 캄보디아성결교회의 자립, 자치, 자전을 위해 하나 되어 섬기는 캄보디아 선교부가 될 수 있도록.
- ③ 캄보디아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 위하여.
- ④ 언동르싸이 교회가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되고 쓰라린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하도록.
- 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가 생활화 되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 ⑥ 언동르싸이 교회에 드림이 마련되어 청소년들이 더 마음을 열고 참여하는 예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 ⑦ 언동르싸이 교인 중 한 분인 ‘쩌럽’ 성도가 복수가 차오르는 등 아파 병원을 다니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2024-1학기 시작



캄보디아성결신학대학이 개강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 명의 학생이 새로 입학해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진 한편 2 명의 학생이 집안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어 아쉬운 마음도 컸습니다. 앞으로 중도 탈락자를 막는 방안을 모색하며 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김한웅 선교사는 신약개론을 가르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